

# 경어법

## III

16. 가정에서

17. 직장, 사회에서

## 16. 가정에서



우리말은 경어법이 복잡한 편이다. 문법적으로는 주체를 높이는 존경의 표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공손의 표현, 지금은 그 용법이 거의 사라진 객체와 주체 그리고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른 겸양의 표현 등이 있고, 어휘적으로도 존댓말과 예사말이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적절한 말을 골라 쓰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존경의 표현은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높이고자 할 경우 ‘웃으시다’, ‘건강하시다’와 같이 서술어에 ‘-시-’를 넣어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이 밖에 따로 존댓말을 써서 주체를 높이기도 하는데 ‘밥’을 ‘진지’로, ‘자다’를 ‘주무시다’로, ‘먹다’를 ‘잡수다’, ‘잡수시다’와 같이 바꾸어 말한다.

용언이 여러 개 함께 나타날 경우 일률적으로 규칙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문장의 마지막 용언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밖의 용언에도 ‘-시-’를 넣을 수 있다. 용언마다 ‘-시-’를 넣는 것이 더 높이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용언마다 ‘-시-’를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나친 존대는 도리어 예의가 아니고 모든 용언에 ‘-시-’를 넣는 것이 항상 자연스럽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름]이/가 일을 마치고 갔다.’를 높여 말하는 경우 ‘○○[이름]이/가 일을 마치시고 가셨다.’ 또는 ‘○○[이름]이/가 일을 마치고 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가능한 말이다.

그런데 ‘왔다가 가셨다.’ 보다는 ‘오셨다가 가셨다.’가 자연스러운 반면 ‘읽으시고 계시다.’ 보다는 ‘읽고 계시다.’가 적절한 말이다. ‘할머님이 주무시고 가셨다.’에서 ‘자다’에 대한 존경의 어휘가 ‘주무시다’처럼 따로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존경의 어휘를 쓰고 함께 나타나는 다른 서술어에 ‘-시-’를 붙여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존댓말을 잘 가려 쓰는 것도 중요하다.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았다.’ 보다는 ‘아버지한테 걱정을 들었다.’, ‘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었다.’,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들었다.’처럼 말하는 것이 전통 예절에 가깝다. ‘묻다’는 ‘여쭙다’로, ‘말하다’는 ‘아뢰다’나 ‘말씀드리다’로, ‘주다’는 ‘드리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

존칭의 조사 ‘께서’, ‘께’는 대화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용언의 ‘-시-’로도 충분

히 높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어에서는 ‘께서’, ‘께’ 등과 같은 조사보다는 ‘이/가’, ‘한테’ 등을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러나 꼭듯이 존대해야 할 사람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께서’나 ‘께’ 등으로 높이도록 한다.

존경의 어휘를 쓰지 않아야 할 자리에 존경의 어휘를 쓰는 것은 잘못이다. ‘아버님은 9층에 볼 일이 계시다.’는 옳지 않고 ‘볼 일이 있으시다.’가 옳다. 이는 ‘볼 일이 안 계시다.’는 안 되고 ‘볼 일이 없으시다.’가 옳은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또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꼭 한 가지씩 저에게 여쭙어 봐요.’처럼 자신에게 물어본 것을 아랫사람이 물었다고 해서 ‘여쭙다’를 쓰는 것도 잘못 쓰는 예 가운데 하나이다.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경어상의 등급이 달라지는데 이를 공손의 표현이라 한다. 공손의 표현은 문장의 끝에 나타나는 것으로 대체로 ‘왔습니다’, ‘왔어요’, ‘왔소’, ‘왔네’, ‘왔어’, ‘왔다’와 같이 등급에 따라 어미를 달리한다. 이 중 문제되는 것이 ‘제가 했어요’, ‘그러셨어요?’ 등과 같은 ‘해요체’의 말이다. 이 ‘해요체’는 꼭듯이 존대를 해야 할 사람에게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말이지만 가정에서는 분위기나 화제에 따라 적절히 쓸 수 있는 친밀한 표현이다. 그러나 ‘고맙습니다.’처럼 굳어진 인사말이 있는 경우에는 ‘고마워요.’와 같은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 경어 사용의 예

부모를 조부모께 말할 때에는 ‘할머니/할아버지, 어머니/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처럼 부모에 대해서는 높이지 않는 것이 전통 언어 예절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전통도 변하여 부모보다 윗분에게도 부모를 높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현실을 인정하여 ‘할머니/할아버지, 어머니/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와 같이 부모를 부모의 윗사람에게 높여 말할 수도 있다.

부모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낮추어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는 전통적인 어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부모를 말할 때는 언제나 높여, 학교 선생



남에게 부모를 말할 때에도 ‘저희 어머니/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와 같이 하는 것이 바른 언어 예절이다.

남편을 시부모에게 말할 때는 ‘아범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버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또는 ‘그이가 어머님/아버님께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와 같이 낮추어 말한다. 남편의 형, 누나에게 말할 때에는 ‘그이가 어머님/아버님께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와 같이 쓴다. 그러나 시동생이나 손아래 사람에게는 ‘형님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또는 ‘○○[자녀] 아버지는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처럼 높이는 것이 좋고, ‘○○[자녀] 아버지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처럼 낮추어 말할 수도 있다.

배우자를 배우자의 친구나 회사 상사와 같이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말할 수도 있다. 배우자를 배우자의 친구나 회사 상사에게 말할 때에는 ‘-시-’를 넣지 않는 것이 무난하다. 또한 방송 출연을 했을 때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우자에 대해 말할 때, 나이 든 사람은 ‘-시-’를 넣어 말해도 되지만 젊은 사람이 ‘-시-’를 넣어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자녀를 손주에게 말할 때에는 ‘○○[손주]야, 어멈/아범 좀 오라고 해라.’, ‘○○[손주]야, 어미/아비 좀 오라고 해라.’ 보다는 ‘○○[손주]야, 어머니/아버지 좀 오라고 해라.’처럼 ‘어멈’, ‘어미’, ‘아범’, ‘아비’ 보다는 ‘어머니’, ‘아버지’로 가리키고 서술어에 ‘-시-’를 넣지 않고 말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손주에게 어머니/아버지는 대우해서 표현해야 할 윗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서술어에 ‘-시-’를 넣어 ‘○○[손주]야, 어머니/아버지 좀 오시라고 해라.’도 쓸 수 있다.

표 Ⅲ-1 경어 사용의 예 - 가정

부모를 조부모께	할머니/할아버지, 어머니/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 할머니/할아버지, 어머니/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선생님께	저희 어머니/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시부모나 손위 사람에게	아범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비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이가 어머님/아버님께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시동생이나 손아래 사람에게	형님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자녀] 아버지는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자녀] 아버지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배우자를 그 밖의 사람에게	그이는/집사람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자녀] 어머니/○○[자녀] 아버지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자녀를 손주에게	○○[손주]야, 어머니/아버지 좀 오라고 해라. ○○[손주]야, 어머니/아버지 좀 오시라고 해라.

## 17. 직장, 사회에서



속담에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 두부 사 온다.”라는 말이 있다. 말하는 상대방의 태도가 마음에 들고 뜻이 고마우면 제가 예정했던 것보다 후하게 해 준다는 뜻이다. 깨어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같은 직장의 사람들, 거래처의 사람들, 가끔 만나거나 전화로 대화를 하는 직장 동료의 가족들, 버스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과 말을 할 때는 집안 식구와 말할 때보다 경어법에 더욱 주의를 하여야 한다.

## 존경의 표현

대부분 사람들은 직장에서 지칭어와 경어법을 쓰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지칭어는 대체로 호칭어를 그대로 쓰는데 지칭 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상대방에게 지칭하는가에 따라 그 지칭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지칭 대상이 동료이거나 아래 직원인 경우에는 ‘○○○ 씨가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처럼 주체를 높이는 ‘-시-’를 넣지 않는 경우가 흔한데, 직급이 높은 사람은 물론이고 직급이 같거나 낮은 사람에게는 직장 사람들에게 관해 말할 때에는 ‘-시-’를 넣어 ‘김 대리 거래처에 가셨습니까?’ 처럼 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칭 대상이 말하는 사람보다 상급자인 경우, 듣는 사람의 직위와 나이를 고려하여 ‘총무과장이’,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장님께서’ 가운데 어떤 것을 써야 할지 또 ‘하시었’이라고 할 것인지 ‘했’이라고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어렵다. 듣는 사람이 지칭 대상보다윗사람이거나 듣는 사람이 회사 밖의 사람인 경우에 ‘총무과장이 이 일을 했습니다.’ 처럼 말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교육하는 회사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장에서의 압존법은 우리의 전통 언어 예절과는 거리가 멀다.

윗사람 앞에서 그 사람보다 낮은 윗사람을 낮추는 것이 가족 간이나 사제 간처럼 사적인 관계에서는 적용될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 쓰는 것은 어색하다. 따라서 직장에서 윗사람을 그보다 윗사람에게 지칭하는 경우, ‘총무과장님께서’는 곤란하여도, ‘총무과

장님이' 라고 하고 주체를 높이는 '-시-'를 넣어 '총무과장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처럼 높여 말하는 것이 언어 예절에 맞다.

최근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문의하신 상품은 품질이실니다.'처럼 서비스업이나 판매업 종사자들이 고객을 존대하려는 의도로 불필요한 '-시-'를 넣은 표현을 적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성품, 심리, 소유물과 같이 주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을 통하여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 존대'에는 '눈이 크시다.', '걱정이 많으시다.', '선생님, 벼타이가 멋있으시네요.'처럼 '-시-'를 동반한다. 그러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문의하신 상품은 품질이실니다.'처럼 '-시-'를 남용하는 것은 바른 경어법이 아니다. '말씀하신 사이즈가 없으실니다.', '(패스트푸드점, 커피 전문점 등에서) 포장이세요?', '품질이실니다.'에서 '사이즈', '포장', '품질'은 청자의 소유물 혹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사이즈가 없습니다.', '포장해 드릴까요?', '품질입니다.'가 바른 표현이다.

## 공손의 표현

공식적인 상황이거나 덜 친밀한 관계에서는 직장 사람들에게 직급에 관계없이 '거래처에 전화하셨습니까?', '거래처에 전화했습니까?', '거래처에 전화하십시오.', '거래처에 전화하시지요.'처럼 '하십시오체'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친소 관계와 상황에 따라 '거래처에 전화하셨어요?', '거래처에 전화했어요?', '거래처에 전화하세요.', '거래처에 전화해요.'처럼 적절히 높여서 쓸 수도 있다. 아무리 듣는 사람이 아래 직원이라고 해도 '거래처에 전화했니?', '거래처에 전화해라.'(해라체)는 쓰지 않는 것이 옳고, 가급적이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뜻에서 높여 말하는 것이 좋다.

표 Ⅲ-2 공손의 표현

<p>공식적인 상황이거나 덜 친밀한 관계에서</p>	<p>거래처에 전화하십니까? 거래처에 전화했습니까? 거래처에 전화하십시오. 거래처에 전화하시지요.</p>
<p>비공식적인 상황이거나 친밀한 관계에서</p>	<p>거래처에 전화하셨어요? 거래처에 전화했어요? 거래처에 전화하세요. 거래처에 전화해요.</p>

## 겸양의 표현

우리가 집에서 어른에 관하여 말할 때는 ‘잡수시다’, ‘주무시다’와 같은 높임말과 ‘드리다’, ‘여쭙다’, ‘뵙다’, ‘모시다’처럼 겸양의 말을 쓰는데, 직장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적절히 골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집에서는 ‘할아버지, 진지 잡수셨습니까? 처럼 ‘밥’에 대하여 ‘진지’를 쓰지만 직장이나 일반 사회에서는 ‘과장님, 점심(저녁) 잡수셨습니까?’, ‘과장님, 점심(저녁) 드셨습니까?’, ‘과장님, 점심(저녁) 식사하셨습니까? 처럼 ‘점심(저녁)’이나 ‘식사’로 쓰는 것이 좋다. ‘점심(저녁) 잡수셨습니까?’와 ‘점심(저녁) 드셨습니까?’, ‘점심(저녁) 식사하셨습니까?’ 중에서 ‘점심(저녁) 잡수셨습니까?’가 가장 정중한 표현이고, 그 다음이 ‘점심(저녁) 드셨습니까?’이고, 그 다음이 ‘점심(저녁) 식사하셨습니까?’이다.

윗사람이나 남에게 말할 때는 자기와 관계된 부분을 낮추어 ‘저희 가게’, ‘저희 학교’, ‘저희 회사’ 등과 같이 ‘우리’ 대신 ‘저희’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라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로 써서는 안 되고 항상 ‘우리나라’로 써야 한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 같은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